건강 가득 제품으로 소비자 공략…JQ 인증으로 판로 확대 도모

Quality Certification Mark JQ Made in Jeju

메이드 인 제주

3. 주식회사 푸른들

제주에서 나고 자란 손성균 대표는 청정 제주 자연을 가득 담은 상품으로 소비자를 공략하고 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농업에 종사해 30년간 농업이라는 '한 우물'을 파고 있는 손 대표는 100% 청정 제주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가공식품을 선보이면서 주목받는 중이다.

손 대표는 2000년 푸른들 가공 공장을 설립해 알로에 가공식품을 생산하면서 농산물 가공식품 사업에 뛰어들었고, 현재는 알로에, 새싹보리, 백년초, 양배추, 울금, 케일, 손바닥선인장 등을 활용한 가공식품을 생산하며 '청정 제주'를 담아내고 있다.

푸른들은 2021년 GMP(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인증에 이어 지난해 제주 6차산업 인증을 획득했고 올해 속편하겔, 양배추환, 백년초분말, 새싹보리분말, 알로에센스정에 대한 JQ(제주 우수제품 품질 인증)를 획득하면서 '메이드 인 제주'의 가치를 드높이고 있다.

● 청정 제주 '푸른 들'에서 키워낸 농산물

푸른들은 청정 제주의 푸른 들판에서 키워낸 '제주산 농산물'을 직접 가공하고 생산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1만6500㎡ 규모의 밭에서 농산물을 재배하며 연간 40만㎏의 제주산 농산물을 가공식품으로 시장에 선보이는 중이다.

알로에를 건조한 후 '정' 형태로 판매하는 '알로에센스정'이 대표적이다.

손 대표는 "알로에는 가루 형태로 만들었을 때 쓴맛이 많이 나 거부 반응을 보이는 소비자들이 있었다"며 "어떻게 하면 쓴맛을 내지 않을 수 있을까 하다 '환'이나 '정' 형태로 만들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 '알로에센스정'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알로에센스정으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기 시작한 푸른들은 현대 사회 트렌드에 맞춘 신제품을 출시하며 시장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제주테크노파크와 손을 잡고 '다이어트 콤부차' 제품을 개발한 것이 일례다.

푸른들은 또 소비자 접근성 확대를 위해 자사 온라인 도소매 쇼핑몰을 구축·운영하는 한편 e-제주몰 온라인 판매도 진행하면서 소비자 접근성 확대도 꾀하고 있다. 이에 더해 올해 JQ 인증을 획득하면서 판로 확대를 꾀하고 있다.

손 대표는 "JQ 인증 획득이 우리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는 계기가 되겠다고 생각해 JQ 인증 획득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세계 자연 유산 청정 제주의 친환경으로 재배된 원료를 이용해 우수한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로 건강과 즐거움, 편리함을 드리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알로에·백년초·양배추·새싹보리 등 활용

'청정 제주' 담아낸 가공식품 생산

온라인 판매 등 소비자 접근성 확대

JQ 획득, 제품 우수성 인정받는 계기

우수한 품질 제품 생산·서비스 제공 최선

송성균 대표(왼쪽)와 김영애 경영지원본부 이사.

● 비우다 그리고 채워가다…'느랑풀' 상표로 브랜딩 강화

손성균 대표는 '청정 제주' 이미지를 강조하고자 2020년 '느랑풀' 상표를 출원해 브랜딩을 강화하고 있다.

'느랑풀'은 '늘 푸르게 자연들 담는다는 의미로, 청정 제주 자연을 담은 상품이 소비자의 해로운 것을 비워내고 건강·사랑·행복을 채운다는 의미를 담았다.

20년간 사업을 하면서 포기하고 싶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자신과 함께 힘든 순간을 비워내고 행복을 채워주는 가족에서 영감을 받은 브랜드다.

손 대표는 "소비자들이 저희 제품을 통해 '여기만큼 믿을 곳이 없다'는 성원의 말씀을 주실 때마다, 가족의 응원을 받을 때마다 불행을 비워내고 행복의 가치를 채워가는 저 자신을 만나게 됐다"며 "20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지만, 가족과 소비자들이 있어 견딜 수 있었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삶이 보릿고개 같지만 언젠가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다짐하고 겸손하고 초심을 잃지 않으려 한다"며 "저희 푸른들 직원 모두가 늘 진심으로 여러분께 다가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 이 기사는 제주특별자치도와 뉴제주일보의 공동기획으로 진행됐습니다.